

여고생의 교복 만족도에 따른 교복 변형 행동에 관한 연구

류신아 · 박길순[†] · 김호경*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중앙대학교 실버의류 실용화 기술지원 센터

A Study on Alteration Behavior by High School Girl Students' Satisfaction for School Uniforms

Sin-A Ryu · Kil-Soon Park[†] · Ho-Kyung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ilver Apparel Practical Technology Center, Chung-Ang University

접수일(2010년 10월 21일), 수정일(2010년 12월 28일), 게재확정일(2011년 2월 16일)

Abstracts

This study analyzed the present uniform satisfaction, uniform satisfaction followed by physical satisfaction, attitude for uniform, purchase attitude for uniform, satisfaction for design, preference for design, and attitude for uniform alteration behavior by distributing questionnaires to high school girl students in Daejeon C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study distributed questionnaires to 319 high school girl students in Daejeon City and analyzed the satisfaction factors for their uniforms. As the result, this study induced four factors. The average value of each factor appeared in order of symbolic satisfaction, management satisfaction, activity satisfaction, and aesthetic satisfaction to show that high school girl students were the most dissatisfactory in aesthetic satisfaction. When the study examined the realities of uniform alteration, it showed that 71.2% of them altered their uniforms. In the alteration of a jacket and a skirt, they altered their jackets shortly and tightly in the mass in the order of: waist measurement, jacket length, breast width, shoulder width, and girth of the chest in a jacket. For a skirt, they altered their skirts tightly as a jacket in the order of: skirt length, waist measurement, and the girth of hip.

Key Words: High school girl students, School uniform, Alteration behavior, Satisfaction; 여고생, 교복, 변형 행동, 만족도

I. 서 론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낼 뿐 아니라 방과 후에도 학교 내외에서의 과외수업으로 등교 시 착용한 교복을 하루 종일 착용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그 중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이인자, 1992). 교복은 부활 이후 착용률이 매년 증가하여 2000년 학교 수

4,688개(중학교 2,731개, 고교 1,957개)를 기준으로 95% 정도의 학교에서 착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공정거래위원회, 2001), 현재 중·고등학생의 교복은 자율화 이전의 교복보다 색상이나 디자인 면에서 많이 다양해졌으나 오늘날의 사회적 변화와 개방화된 교육체제 하에서 욕구 및 감각추구가 다양한 학생들이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대해 만족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특히 여고생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당시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심미적 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교복을 착용하게 되면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주게 되어 교복에 대한 불만족

[†]Corresponding author
E-mail: kspark@cnu.ac.kr

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김인숙, 장혜경, 1999). 대부분의 중·고등학생은 교복을 개별적으로 맞추기 보다는 기성 교복 제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크며 다수의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치수체계는 아직 불충분하다. 또한 교복 치수가 전체적으로 크게 설정되어 있거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치수규격에 차이를 두지 않아(김희련, 1994) 여고생들은 착용 시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교복의 변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차적으로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처럼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생활지도 차원에서 과도한 교복 변형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교복 변형은 계속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생활지도 차원에서 과도한 교복 변형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교복 변형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혜경, 2000). 따라서 합리적인 교복의 치수체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교복 착용자가 착의 시 느끼는 교복의 만족도에 교복 변형 행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목적은 교복 변형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복 변형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교복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현재 교복 착용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교복 변형의 실태와 원인을 밝히기 위해 대전시 내 여고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법을 이용하여 현재 교복의 만족도, 신체 만족도에 따른 교복 만족도, 교복의 구입 태도 및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도, 교복 변형에 따른 태도를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교복의 변형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찾아 교복의 패턴 및 제품 생산하는데 있어 도움 되어 학생들이 교복을 구매하고 변형을 하는데 있어 변형하는 정도를 줄이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교복의 만족도

자신의 의복에 만족한 상태일 때 자신감과 안정감을 갖게 되는 반면, 자신의 의복이 초라하거나 동료집단의 의복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는 불안감을 느끼고 동료집단을 회피하려 하며 자기비하의 현상까지 생긴다(김순화, 1992). 따라서 의복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는데 도움이 되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게 하므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보다 만족스럽게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복에 대

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이상희, 1996).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교복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희(1990)의 연구에서 64%, 김경순(1993)의 연구에서는 41.2%, 박정희(1998)의 연구에서는 41.5%의 학생이 불만족을 표시했다. 불만족 이유로 가장 큰 것은 ‘활동에 불편을 느낀다’가 가장 많이 나왔으며 다음으로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순으로 나왔다. 백승희(2000)의 연구에서 교복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하는 원인은 ‘예쁘니까’였고, 불만족하는 원인으로서는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서’로 교복에 대한 만족·불만족 원인이 심미적 측면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고생들은 대부분 교복 착용집단으로서 획일적인 디자인의 대량생산 제품에 의생활을 의존하고 있다. 디자인, 소재, 봉제 등이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된 현 상황에서 교복의 외관은 맞춤새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김인숙, 장혜경, 1999). 업체와의 면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생산 제품의 경우 디자인이나 색상보다는 맞춤새를 더욱 중요시 한다. 그러나 현행 기성 교복 업체의 치수는 전체적으로 크게 설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고생의 경우 중학생과의 신체적 특징과 발달이 틀린데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복 치수가 똑같이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여고생들은 중학생의 급격한 성장과는 달리 완만한 성장곡선을 이루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체의 라인을 살린 교복을 착용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으므로(박영애, 1998) 교복 치수는 여고생들의 신체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여고생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여고생들의 교복 착용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학생들이 교복 치수에 불만사항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김덕하(2000)는 여중생들의 교복 착용 실태조사에서 치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크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의 부위에서 40~50% 정도를 차지해 교복 치수가 전체적으로 너무 크게 설정되어 불만족스럽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업체 제품 치수에 대해 치수 만족도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부위로는 재킷인 경우 허리둘레, 어깨너비, 소매길이, 스커트는 스커트 길이,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로 나타났다.

2. 교복 변형 행동

외모에 관심이 큰 청소년기의 여고생들은 자신의 개성을 돋보이고 싶어 하는 심리와 관심 있는 소규모

집단에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교복 변형에 동조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있으며 교복 변형을 하나의 개성표현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여고생들은 교복도 현대사회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에 맞게 변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복 변형에 대해 긍정적이고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혜경, 2000).

교복 변형에 관한 박정희(1998)의 연구결과를 보면 종래의 교복에 대한 불만족으로 교복 변형의 경험이 있는 여고생은 82.3%이었으며 그 이유로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바느질한 곳이 뜯어져서', '유행에 맞게 입으려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혜경(2000)의 연구에서는 1년간 교복을 변형한 응답자가 52.7%, 이소은(2000)의 연구에서는 64.9%, 이애경(2006)의 연구에서는 남녀 합하여 58.1%가 교복을 변형한 것으로 나타나 50% 이상의 학생들이 교복을 변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복 변형의 이유를 고애란 외(1999)의 연구에서는 '교복이 체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고친다'가 가장 많이 나왔으며, 이혜경(2000)의 연구에서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치수가 맞지 않아서, 유행 순이었으며, 이애경(2006)의 연구에서는 교복 변형의 이유로 유행이 약 20%, 치수에 대한 불만이 6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권유민(2008)의 연구에서는 교복 변형의 목적을 조사한 결과 치수가 잘 맞지 않아서(181명, 30.1%), 체형을 아름답게 보완하기 위해(174명, 29.0%),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79명, 13.1%), 유행을 반영하기 위해(72명, 12.0%),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64명, 10.6%)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볼 때 여고생들은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치수에 불만족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복 변형의 유형은 하의의 길이와 폭을 줄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의의 품과 길이 순으로 많았다. 교복 변형의 유형은 연구지역과 대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하의 교복에 대한 변형이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신체 만족도 면에서 하의의 신체 불만을 표현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교복 변형의 정도나 빈도에 관계없이 교복 변형을 한 청소년이 52.7%(이혜경, 2000), 58.1%(이애경, 2006)로 과반수를 넘는 편이었으나, 점점 해가 더해 갈수록 권유민(2008)의 연구에서는 85.0%가 교복 변형을 한 사례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학생들 사이에서 교복 변형 행동은 매우 일반적

으로 일어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교복 구입 단계에서 교복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교복 변형 행동과 관련된 사전 생활지도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권유민(2008)의 연구에서 교복 변형을 찬성한 627명(95.3%) 중 여고생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인식은 교복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경우 변형할 수 있다(250명, 39.9%), 교복도 유행에 맞게 변형할 수 있다(193명, 30.8%), 개성 있는 스타일을 연출을 위해 변형할 수 있다(184명, 29.3%) 정도로 조사되었다. 교복 변형의 기준은 타이트하게 몸에 밀착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정혜경, 김세희, 2004).

III. 연구방법

현행 교복에 대한 만족도와 교복 변형 행동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문항과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문항들로 기초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2007년 5월 21일 대전 소재 여자 고등학교 중 본 연구에서 선택한 여자 고등학교 소속 6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복 디자인이 각기 다른 7개 학교를 선정하여 2007년 8월 11일부터 26일까지 여고생 350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을 한 31명을 제외하고, 총 319명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 18.0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 분석, 기술통계, 요인분석,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인구통계적 특성, 현재 교복 만족도, 신체 만족도에 따른 교복 만족도, 교복의 구입 태도,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도, 교복 변형 태도에 따른 수선에 관한 문항들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구통계적 변인은 키, 몸무게,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학교·학년 총 5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학교 유형은 남녀공학과 여자 고등학교로 구분하였다.

현재 교복 만족도는 디자인, 활동성, 유행성, 세탁성, 경제적 측면과 관련한 총 24개 문항으로 최중명, 김희숙(2000), 한미화, 이은희(2009) 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5점 리커트(Likert)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신체 만족도에 따른 교복 만족도는 일반적인 신체 만족도와 교복을 착용하였을 때의 신체 만족도로 나누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교복에 대한 태도는 하루 중 교복의 착용 시간과 학교수업 이후의 착용하는 의복으로 구성되었다. 구입태도는 교복 구입 형태, 구입 브랜드, 교복 브랜드의 선택 동기, 선택한 교복 브랜드의 장·단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선택한 교복 브랜드의 장·단점에 대한 문항들은 복수응답하도록 하였다.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교복의 적합한 형태와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여유분에 대한 문항들로 교복의 적합한 형태에서는 교복의 형태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문항을 만들어 선택하도록 하였다.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는 상의와 하의의 적합한 길이 형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복 변형 행동 실태조사는 교복 변형 유무, 변형하는 이유, 변형하지 않는 이유, 변형에 대한 생각, 재킷과 스커트의 변형 부위, 변형 장소,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 부위 중 변형하고 싶은 부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재킷과 스커트의 변형 부위 선택은 부위별로 나누어 선택하며 재킷은 9개 부위(어깨너비, 앞뒀, 뒤뒀, 가슴둘레, 허리둘레, 진동둘레, 재킷길이, 소매통 소매길이)와 스커트는 7개 부위(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스커트 길이, 밑단

둘레, 주름, 트임)를 제시한 후 5점 리커트 척도로 ‘많이 줄임’(1점), ‘약간 줄임’(2점), ‘고치지 않음’(3점), ‘약간 늘임’(4점), ‘많이 늘임’(5점)에 해당하는 곳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본 연구의 설문대상자는 현재 대전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 319명(100%)으로 구성되었다. 조사항목은 학교, 학년, 키, 몸무게,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학교는 남녀 고등학교 여학생 138명(43.3%), 여자 고등학교 여학생 181명(56.7%)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168명(52.7%), 2학년 151명(47.3%)이었다. 키는 160cm 이상~165cm 미만인 131명(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몸무게는 50kg 이상~55kg 미만이 가장 많았다. 허리둘레에서는 66cm 이상~68.6cm 미만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교복 스커트 68호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어 사이즈와 동일하였다. 엉덩이둘레

<표 1> 설문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항 목		빈도(n)	백분율(%)	항 목				
학 교	여자 고등학교	181	56.7	허리 둘레	58.4cm 미만	6	1.9	
	남녀 고등학교	138	43.3		58.4cm 이상~60.9cm 미만	19	6.0	
학 년	1학년	168	52.7		60.9cm 이상~63.5cm 미만	39	12.2	
	2학년	151	47.3		63.5cm 이상~66.0cm 미만	64	20.1	
키	150cm 미만	1	0.3		66.0cm 이상~68.6cm 미만	77	24.1	
	150cm 이상~155cm 미만	24	7.5		68.6cm 이상~71.1cm 미만	54	16.9	
	155cm 이상~160cm 미만	77	24.1		71.1cm 이상~74.0cm 미만	34	10.7	
	160cm 이상~165cm 미만	131	41.1		74.0cm 이상~76.0cm 미만	19	6.0	
	165cm 이상~170cm 미만	68	21.3		76.0cm 이상~78.0cm 미만	4	1.3	
	170cm 이상	18	5.6		78.0cm 이상	3	0.9	
몸무게	40kg 미만	5	1.6		엉덩이 둘레	81.3cm 미만	24	7.5
	40kg 이상~45kg 미만	26	8.2			81.3cm 이상~83.8cm 미만	50	15.7
	45kg 이상~50kg 미만	103	32.3			83.8cm 이상~86.4cm 미만	63	19.7
	50kg 이상~55kg 미만	108	33.9			86.4cm 이상~88.9cm 미만	67	21.0
	55kg 이상~60kg 미만	50	15.7	88.9cm 이상~91.4cm 미만		57	17.9	
	60kg 이상~65kg 미만	17	5.3	91.4cm 이상~94.0cm 미만		36	11.3	
	65kg 이상~70kg 미만	7	2.2	94.0cm 이상~96.5cm 미만		12	3.8	
	70kg 이상	3	0.9	96.5cm 이상~99.0cm 미만		8	2.5	
				99.0cm 이상		2	0.6	

는 86.4cm 이상~88.9cm 미만인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대상자의 로리지수는 표준체형이(115 이상~144 이하) 185명 (58.0%), 마른체형이(114 이하) 110명 (34.5%), 보통 비만형이(145 미만~159 이하) 17명 (5.3%), 비만형이(160 이상) 7명(2.2%)이었다.

2. 교복 만족도 및 신체 만족도

현재 입고 있는 교복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

해 조사한 평가문항은 <표 2>와 같고,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고, 문항 중에 3.5점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문항은 ‘교복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3.68), 교복을 입는 것이 학생의 신분을 나타내준다고 생각된다(3.81), 빈부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므로 교복이 필요하다(3.75)’의 항목으로 그 문항들이 교복을 입으므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큰 효과임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반면에 2.5점 이하의 부정적 측면에서 불만족하고 있는 문항으로는 ‘교복 디자인은 다른 학교

<표 2> 현재 교복 만족도 평가

번호	내용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학 교	집단별 평균	유의확률
1	교복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2.70	0.96	여자	2.77	.098
				남녀	2.59	
2	교복 디자인은 다른 학교 교복보다 마음에 든다	2.34	1.11	여자	2.13	.000***
				남녀	2.61	
3	교복을 입으면 단정해 보인다	3.34	0.92	여자	3.35	.778
				남녀	3.32	
4	교복이 나의 전체적인 외모를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한다	2.19	0.94	여자	2.14	.336
				남녀	2.25	
5	교복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68	0.98	여자	3.70	.693
				남녀	3.65	
6	여러 번 세탁해도 옷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3.12	1.05	여자	3.18	.262
				남녀	3.04	
7	교복의 디자인은 청소년 감각에 맞는다	2.11	0.93	여자	2.07	.376
				남녀	2.16	
8	버스 손잡이를 잡을 때 불편하다	3.72	1.10	여자	3.58	.009**
				남녀	3.91	
9	교복을 입으면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억제하게 된다	2.99	1.04	여자	3.08	.089
				남녀	2.88	
10	교복의 상·하 비례가 맞는다	2.96	0.90	여자	2.89	.111
				남녀	3.05	
11	몸을 뒤로 재길 때 편안하다	2.37	1.00	여자	2.45	.088
				남녀	2.26	
12	체형의 결점을 보완해주는 편이다	2.33	1.00	여자	2.30	.531
				남녀	2.37	
13	교복의 질감이 좋다	2.57	1.00	여자	2.45	.018*
				남녀	2.72	
14	구김이 잘 가지 않는 편이다	2.25	1.00	여자	2.29	.429
				남녀	2.20	

* $p<.05$, ** $p<.01$, *** $p<.001$

<표 2> 계 속

번호	내용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학 교	집단별 평균	유의 확률
15	교복을 입는 것이 학생의 신분을 나타내준다고 생각된다	3.81	0.93	여 자	3.91	.027*
				남 녀	3.67	
16	기후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에 대처하기 쉽다	2.18	0.92	여 자	2.23	.313
				남 녀	2.12	
17	책상에 앉아서 학습할 때 편안하다	2.37	1.10	여 자	2.18	.006**
				남 녀	2.52	
18	옷에 덜 신경 쓰게 되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다	2.95	1.16	여 자	3.08	.028*
				남 녀	2.79	
19	오물이 묻었을 때 세탁이 쉽다	2.56	0.94	여 자	2.60	.417
				남 녀	2.51	
20	소속감이 생기고 급우들과 어울리기가 더 편하므로 교복이 필요하다	3.41	1.00	여 자	3.40	.932
				남 녀	3.41	
21	오랫동안 입으면 보풀이 생긴다	2.99	1.14	여 자	3.01	.789
				남 녀	2.97	
22	교복의 색상이 마음에 든다	2.33	1.10	여 자	2.12	.000***
				남 녀	2.60	
23	빈부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므로 교복이 필요하다	3.75	0.95	여 자	3.80	.265
				남 녀	3.68	
24	전반적으로 볼 때 교복은 가격에 비해 품질이 좋은 편이다	2.13	0.93	여 자	2.27	.002**
				남 녀	1.94	

* $p < .05$, ** $p < .01$, *** $p < .001$

교복보다 마음에 든다(2.34), 교복이 나의 전체적인 외모를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한다(2.19), 교복 디자인은 청소년 감각에 맞는다(2.11), 교복의 색상이 마음에 든다(2.33) 문항의 디자인 측면과 '몸을 뒤로 재깍 때 편안하다(2.37), 체형의 결점을 보완해주는 편이다(2.33), 구김이 잘 가지 않는 편이다(2.25), 책상에 앉아서 학습할 때 편안하다(2.37), 기후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에 대처하기 쉽다(2.18) 문항의 동작 기능적 측면과 '전반적으로 볼 때 교복은 가격에 비해 품질이 좋은 편이다(2.13) 가격에 대한 문항이었다. 한미화, 이은희(2009)의 연구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디자인(2.55), 색상(2.61), 옷감(2.70) 순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미한 차이지만 색상(2.33), 디자인(2.34), 옷감(2.57) 순으로 조사되었다.

교복 만족도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징적 만족도, 관리 만족도, 동작만족도, 심미적 만족도 요인 순으로 높게 나타나 교복 착용 시 심미적 만족도와 동작 만족도가 떨어져

<표 3> 교복 만족도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교복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심미적 만족도	2.26	1.0
상징적 만족도	3.61	1.0
동작 만족도	2.82	1.0
관리 만족도	3.06	1.0

교복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복 변형에 있어서 여고생들의 심리와 개성 표현에 만족시키지 못하여 교복 변형을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교복 만족도에 대한 문항들을 요인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4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신체 만족도와 교복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5>와 같다 먼저 신체 만족도에서는 만족하지 않는 부위로는 1순위가 허벅지로 1.79점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2순위가 배(아랫배)로 1.99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현 교복이 유행이 상의 부분이 점점 짧아짐에

〈표 4〉 교복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교복 만족도 문항 및 요인명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1 심미적 만족도	교복 디자인은 다른 학교의 교복보다 마음에 든다	.874	.020	-.012	-.049
	교복의 색상이 마음에 든다	.824	.081	.015	-.084
	교복의 디자인은 청소년 감각에 맞는다	.734	.147	.024	.192
요인 2 신분 상징적 만족도	소속감이 생기고 급우들과 어울리기가 더 편하므로 교복이 필요하다	.131	.830	.065	-.098
	빈부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므로 교복이 필요하다	.025	.800	-.031	-.002
	교복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096	.785	.077	.183
요인 3 동작 만족도	몸을 뒤로 재질 때 편안하다	.046	.053	.823	.062
	책상에 앉아서 학습할 때 편안하다	.210	.177	.735	.039
	버스 손잡이를 잡을 때 불편하다	.244	.124	-.686	.069
요인 4 관리 만족도	여러번 세탁해도 옷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034	.163	.068	.781
	오랫동안 입으면 보풀이 생긴다	.005	.097	.035	-.758
고유값		2.621	1.752	1.540	1.253
회전된 각 요인의 설명분산		2.116	2.060	1.705	1.285
회전된 각 요인의 설명분산 비율(%)		19.235	18.723	15.498	11.678
Cronbach's α		.762	.681	-.138	-.588

따라 배 부분이 두드러지게 보여 가장 불만족 부위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3순위로는 종아리 부분으로 2.10점이 나왔는데 이 결과도 1순위와 같이 교복 스커트에서 가장 많이 보여 지는 종아리 부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한참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남들에게 보여 지는 모습을 중요시 하는 여고생들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4순위로는 몸무게가 2.13점으로 조사되어 현대사회에서 마른 것이 미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것들이 여고생들 사이에서도 본인의 신체 만족도를 저하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만족하는 부위로는 머리카락 색이 3.42점으로, 목길이가 3.03점으로 두 항목만이 '보통이다' 점수로 조사되었고, '만족한다'라는 점수인 4점 이상은 한 항목도 없었으며, 전체적인 체형(몸매)은 2.34점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복에 따른 신체 만족도는 모든 부위가 보통이 아닌 2점대로 조사되었다. 교복을 입었을 때의 신체 만족도는 자신의 신체 만족도보다 더 낮은 만족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점수도 낮게 형성되어 있고, 체형(몸매) 만족 점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위별로 살펴보면 만족하지 않는 부위는 1순위로 다리길이가 2.28점, 2순위가 종아리굵기 2.30점, 3순위가

팔뚝굵기 2.31점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가 대부분으로 이는 신체 만족도와 같이 교복을 입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인 하의 스커트에서 다리길이, 종아리굵기, 상의에서 팔뚝굵기 부위에서 가장 만족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교복의 구입 태도

하루에 몇 시간 착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15~16시간'이 118명(37.0%)이었고, '14~15시간'이 90명(28.2%)으로 65.2%가 14시간 이상을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교 수업 이후(독서실이나 학원 등에서)에 착용하는 의복으로는 '캐주얼웨어'가 154명(48.3%), '교복'이 114명(35.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복 구입 형태는 '기성복'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235명(73.7%), '맞춤복'은 84명(26.3%)으로, 현재 착용하고 있는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스마트'와 '엘리트'의 교복 브랜드가 각각 83명(26.8%), '아이비클럽'의 브랜드가 53명(16.6%)으로 조사되었다. 3사의 브랜드에서 70.2%를 차지하고 있었다.

구입한 브랜드의 선택 동기로는 <표 6>과 같이 '디자인이 좋은 것'이 106명(33.2%)으로 브랜드를 선택하는 가장 우선 동기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교복

<표 5> 신체 만족도와 교복 만족도

신체 만족도					교복 만족도						
신체 부위	평균	표준 편차	학 교	집단별 평균	유의확률	신체부위	평균	표준 편차	학 교	집단별 평균	유의확률
머리(크기)	2.68	1.11	여 자	2.85	.003**	얼 굴	2.49	0.87	여 자	2.58	.039*
			남 녀	2.47					남 녀	2.38	
머리카락(색)	3.42	0.96	여 자	3.48	.175	피부색	2.63	0.93	여 자	2.73	.024*
			남 녀	3.33					남 녀	2.49	
목(길이)	3.03	0.97	여 자	3.12	.042*	목길이	2.76	0.89	여 자	2.88	.006**
			남 녀	2.90					남 녀	2.60	
어깨(넓이)	2.69	1.04	여 자	2.80	.025*	목굵기	2.75	0.85	여 자	2.90	.000***
			남 녀	2.54					남 녀	2.56	
팔뚝(굵기)	2.34	1.05	여 자	2.43	.116	어깨넓이	2.55	0.98	여 자	2.73	.000***
			남 녀	2.24					남 녀	2.33	
손(크기, 모양)	2.85	1.21	여 자	2.84	.869	팔뚝굵기	2.31	0.98	여 자	2.39	.027*
			남 녀	2.86					남 녀	2.22	
가슴(크기)	2.45	1.04	여 자	2.43	.608	허리둘레	2.60	1.05	여 자	2.65	.301
			남 녀	2.49					남 녀	2.53	
허리둘레	2.47	1.03	여 자	2.52	.330	배(아랫배)	2.37	0.90	여 자	2.38	.744
			남 녀	2.41					남 녀	2.35	
배(아랫배)	1.99	0.96	여 자	1.98	.736	영덩이(크기)	2.50	0.98	여 자	2.59	.045*
			남 녀	2.01					남 녀	2.37	
영덩이(크기)	2.18	0.97	여 자	2.27	.058	허벅지	2.84	1.14	여 자	2.86	.738
			남 녀	2.06					남 녀	2.82	
허벅지	1.79	0.91	여 자	1.83	.289	종아리	2.30	1.06	여 자	2.40	.061
			남 녀	1.72					남 녀	2.17	
종아리	2.10	1.06	여 자	2.10	.965	다리길이	2.28	0.99	여 자	2.30	.643
			남 녀	2.09					남 녀	2.25	
발(크기, 모양)	2.85	1.10	여 자	2.85	.892	키	2.44	1.03	여 자	2.45	.779
			남 녀	2.86					남 녀	2.42	
키	2.44	1.20	여 자	2.45	.810	몸무게	2.32	1.02	여 자	2.39	.159
			남 녀	2.42					남 녀	2.22	
몸무게	2.13	1.06	여 자	2.18	.354	피부색	2.64	1.14	여 자	2.45	.779
			남 녀	2.07					남 녀	2.42	
피부색	2.64	1.14	여 자	2.71	.172	체형(몸매)	2.34	1.03	여 자	2.39	.159
			남 녀	2.54					남 녀	2.22	
체형(몸매)	2.34	1.03	여 자	2.49	.005**						
			남 녀	2.16							

* $p < .05$, ** $p < .01$, *** $p < .001$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은 것'이 74명(23.2%)이었다. 반면에 '옷감이 좋은 것'은 22명(6.9%), '광고모델 팬 이어서 혹은 멋있어 보여서' 12명(3.8%), '판매원의

권유'는 6명(1.9%)으로 교복을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복의 브랜드 선택 동기는 학년 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

<표 6> 구입한 브랜드의 선택 동기

(단위: 명(%))

선택 동기 학 년	디자인이 좋은 것	가격이 적당한 것	옷감이 좋은 것	광고모델 팬이어서 혹은 멋있어 보여서	교복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서	친구나 부모님의 조언	판매원의 권유	기 타	전 체
1학년	51(55.8)	19(11.3)	11(6.5)	2(1.2)	43(25.6)	22(13.1)	1(0.6)	19(11.3)	168(52.7)
2학년	55(36.4)	12(7.9)	11(7.3)	10(6.6)	31(20.5)	15(9.9)	5(3.3)	12(7.9)	151(47.3)
전 체	106(33.2)	31(9.7)	22(6.9)	12(3.8)	74(23.2)	37(11.6)	6(1.9)	31(9.7)	319(100)

<표 7> 착용브랜드의 장·단점 (단위: 명(%))

장·단점 항 목	장 점	단 점
브랜드 인지도	129(19.3)	41(5.8)
색 상	76(11.3)	85(12.1)
전체적인 실루엣	115(17.2)	102(14.5)
옷 감	89(13.3)	106(15.0)
상·하의 및 길이	70(10.4)	124(17.6)
디자인	118(17.6)	86(12.2)
가 격	73(10.9)	161(22.8)

있고, 학년에 따라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현재 착용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장·단점으로 생각하는 것을 3가지를 체크하게 하고 다중응답분석 결과 <표 7>과 같이 장점은 ‘브랜드 인지도’가 129명(19.3%), ‘디자인’ 118명(17.6%), ‘전체적인 실루엣’ 115명(17.2%)의 순으로 나타나 브랜드의 인지도에 따라 외관적인 면에 치중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점으로는 ‘가격’ 161명(22.8%), ‘상·하의 및 길이’ 124명(17.6%)이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학생들 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특정 브랜드의 인지도와 디자인 및 실루엣이 좋다는 소문으로 이어져 교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이며, 가격 및 상·하의 및 길이에 대한 단점 등을 보완하여 교복 업체에서는 최근 유행에 맞추어 상·하의 길이가 점차 짧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복을 구입하는 태도 중 원하는 교복 디자인으로 적합한 형태를 조사한 결과 ‘블라우스(셔츠)+스커트+조끼+재킷’이 205명(64.5%), ‘블라우스(셔츠)+스커트+재킷’이 77명(24.2%)으로 ‘블라우스(셔츠)+점퍼스커트+재킷’은 14명(4.4%), ‘블라우스(셔츠)+바지+재킷’은 9명(2.8%)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여유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 그대로’ 122명(38.4%), ‘좀 더 몸에 맞게’ 112명(35.2%), ‘좀 더 여유

있게(활동분이 많게)’ 84명(26.4%)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8>과 <그림 1>은 교복을 구입하는데 있어 선호하는 길이에 대하여 상·하의 길이로 적합한 곳을 조사한 것이다. 상의 길이로는 배꼽수준 높이가 251명(78.7%)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하의 길이에서는 무릎길이 높이로 213명(66.8%)으로 가장 많이 조사되어 기존의 무릎이 가려지는 부분보다는 약간 짧은 길이로 상의 길이와 마찬가지로 유행에 따라 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맞추어 교복 업체들도 상·하의 길이를 점차적으로 짧게 디자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4. 교복 변형에 따른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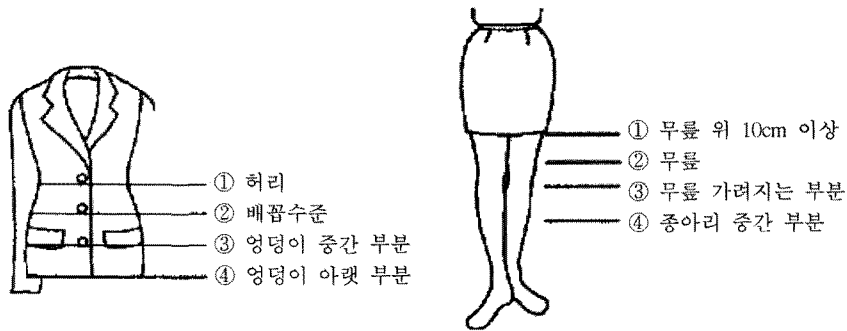
교복 변형 실태는 교복 변형의 유·무와 변형 이유, 교복 변형 부위, 변형 장소에 대해 조사하였다. 교복의 변형 유·무는 <표 9>과 같이 전체의 227명(71.2%)이 교복 변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교복 디자인이 몇 년씩 계속 이어짐에 따라 유행에 맞추어 교복을 수선하는 경향으로 보인다. 학년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교복을 수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복 변형 유·무에서 수선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복을 변형하는 이유와 변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10>과 같이 ‘치수가 맞지 않아서’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123명(54.2%)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한참 몸매에 많은 신경을 쓰고 최대한 날씬하게 보이려는 여고생들의 심리를 반영해 몸에 밀착(fit)되게 옷을 입는 습관으로 인해 시판되는 교복의 치수가 크다고 느끼기에 교복을 수선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교복을 변형한 경험이 없는 92명에 대한 이유는 ‘번거로우서’가 27명(29.3%), ‘치수가 잘 맞아서’가 22명(23.9%), ‘활동에 불편할 것 같아서’가 15명(16.3%)으로 조사되었다. 교복을 변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교복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몸에 맞게 고쳐 입을 수 있다’ 118명

<표 8> 교복 상·하의 길이로 적합한 곳

(단위: 명(%))

학년	상의	허리	배꼽수준	엉덩이 중간부분	엉덩이 아랫부분	전체
1학년		12(7.1)	130(77.4)	22(13.1)	4(2.4)	168(52.7)
2학년		9(6.0)	121(80.1)	19(12.6)	2(1.3)	151(47.3)
전체		21(6.6)	251(78.7)	41(12.9)	6(1.9)	319(100)
학년	하의	무릎 위 10cm 이상	무릎	무릎 가려지는 부분	종아리 중간부분	전체
1학년		13(7.7)	102(60.7)	45(26.8)	8(4.8)	168(52.7)
2학년		4(2.6)	111(73.5)	31(20.5)	5(3.3)	151(47.3)
전체		17(5.3)	213(66.8)	76(23.8)	13(4.1)	319(100)



<그림 1> 교복의 상·하의 길이

<표 9> 교복의 변형 경험 유·무

(단위: 명(%))

학년	내용	변형 경험이 있다	변형 경험이 없다	전체
1학년		116(69.0)	52(31.0)	168(52.7)
2학년		111(73.5)	40(26.5)	151(47.3)
전체		227(71.2)	92(28.8)	319(100)

<표 10> 교복을 변형 이유와 변형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학년	내용	교복을 변형 이유					기타	전체
		유행이므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치수가 맞지 않아서	활동 하는데 불편해서	자기(개성) 스타일이 아니므로		
1학년		0(0.0)	26(22.4)	62(53.4)	7(6.0)	20(17.2)	1(0.9)	116(51.1)
2학년		4(3.6)	25(22.5)	61(55.0)	6(5.4)	13(11.7)	2(1.8)	111(48.9)
전체		4(1.8)	51(22.5)	123(54.2)	13(5.7)	33(14.5)	3(1.3)	227(100)
학년	내용	변형하지 않는 이유					기타	전체
		치수가 잘 맞아서	번거로워서	활동에 불편할 것 같아서	학교 규제 때문에	신체 성장을 고려해서		
1학년		15(28.8)	13(25.0)	5(9.6)	9(17.3)	9(17.3)	1(1.9)	52(56.5)
2학년		7(17.5)	14(35.0)	10(25.0)	3(7.5)	5(12.5)	1(2.5)	40(43.5)
전체		22(23.9)	27(29.3)	15(16.3)	12(13.0)	14(15.2)	2(2.2)	92(100)

(37.0%), ‘각자의 개성이므로 괜찮다’ 99명(31.0%), ‘학교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복을 고치는 것은 괜찮다’ 38명(11.9%), ‘교복도 유행에 맞춰서 고쳐 입을 수 있다’ 24명(7.5%), ‘활동하기 불편할 것이므로 좋아하지 않는다’ 16명(5.0%), ‘교복다움이 없어 지므로 싫다’ 11명(3.4%), ‘몸의 곡선이 너무 많이 드러나 보이므로 싫다’ 9명(2.8%) 순이었다.

교복 변형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표 11>과 같이 ‘교복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몸에 맞게 고쳐 입을 수 있다’가 118명(37.0%)이었고 다음으로 ‘각자의 개성이므로 괜찮다’가 99명(31.0%)이었다.

교복의 변형 부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변형 형태를 줄임과 늘림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표 12>와 같다. 많이 줄임은 2.5~5cm 이상, 약간 줄임은 0~2.5cm 미만으로 제시해 준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재킷 부위에서는 모든 부위가 줄임의 형태가 많았고, 특히 허리둘레는 133명(41.7%)이, 재킷길이는 112명(35.2%)이 길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형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앞품, 뒤품, 가슴둘레 등 전체적으로 짧고 타이트하게 입기 위해 변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커트의 변형 부위와 정도에서는 스커트 길이가 100명(31.4%)로 가장

<표 11> 교복 변형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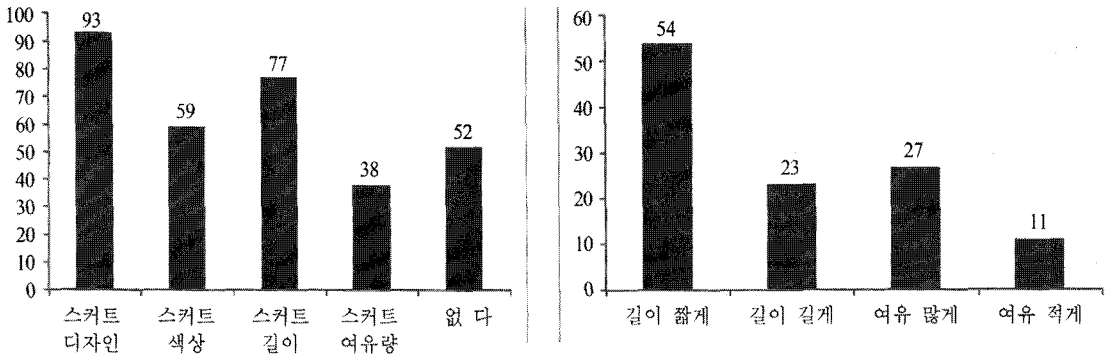
(단위: 명(%))

내 용	학 년	1학년	2학년	전 체
각자의 개성이므로 괜찮다		46(27.4)	53(35.1)	99(31.0)
교복다움이 없어지므로 싫다		8(4.8)	3(2.0)	11(3.4)
교복도 유행에 맞춰서 고쳐 입을 수 있다		15(8.9)	9(6.0)	24(7.5)
활동하기 불편 할 것이므로 좋아하지 않는다		7(4.2)	9(6.0)	16(5.0)
몸의 곡선이 너무 많이 드러나 보이므로 싫다		8(4.8)	1(0.7)	9(2.8)
교복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몸에 맞게 고쳐 입을 수 있다		63(37.5)	55(36.4)	118(37.0)
학교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복을 고치는 것은 괜찮다		18(10.7)	20(13.2)	38(11.9)
기 타		3(1.8)	1(0.7)	4(1.3)
전 체		168(52.7)	151(47.3)	319(100)

<표 12> 재킷과 스커트의 변형 부위 및 정도

(단위: 명(%))

부 위	방 법	방 법				
		많이 줄임	약간 줄임	고치지 않음	약간 늘림	많이 늘림
재킷	어깨너비	14(4.4)	65(20.4)	240(75.2)	-	-
	앞 품	17(5.3)	76(23.8)	226(70.8)	-	-
	뒤 품	16(5.0)	75(23.5)	228(71.5)	-	-
	가슴둘레	11(3.4)	69(21.6)	234(73.4)	5(1.6)	-
	허리둘레	26(8.2)	107(33.5)	185(58.0)	1(0.3)	-
	진동둘레	10(3.1)	48(15.0)	261(81.8)	-	-
	재킷길이	26(8.2)	86(27.0)	206(64.6)	1(0.3)	-
	소매통	11(3.4)	64(20.1)	244(76.5)	-	-
	소매길이	10(3.1)	54(16.9)	250(78.4)	5(1.6)	-
스커트	허리둘레	13(4.1)	58(18.2)	244(76.5)	2(0.6)	2(0.6)
	배둘레	4(1.3)	30(9.4)	282(88.4)	1(0.3)	2(0.6)
	영덩이둘레	7(2.2)	25(7.8)	282(88.4)	2(0.6)	3(0.9)
	스커트 길이	19(6.0)	81(25.4)	208(65.2)	8(2.5)	3(0.9)
	밑단둘레	7(2.2)	33(10.3)	275(86.2)	2(0.6)	2(0.6)
	주 름	6(1.9)	31(9.7)	272(85.3)	7(2.2)	3(0.9)
	트 임	6(1.9)	29(9.1)	268(84.0)	14(4.4)	2(0.6)



<그림 2> 교복 스커트에서 한 가지만 바꾼다면 어느 곳을 바꾸겠는가?

많았고, 다음으로 허리둘레 71명(22.3%) 등 상의와 마찬가지로 타이트하고 짧게 입기 위해 변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 스커트에서 한 가지만 바꾼다면 어느 곳을 바꾸겠는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 319명 중 ‘스커트의 디자인’ 93명(29.2%), ‘스커트 색상’ 59명(18.5%), ‘스커트 길이’ 77명(24.1%), ‘없다’ 52명(16.3%), ‘스커트 여유량’ 38명(11.9%)이 응답하였고, 이 중 스커트 길이는 ‘짧게’ 54명(16.9%), ‘길게’ 23명(7.2%) 스커트 여유량은 ‘많게’ 27명(8.5%), ‘적게’ 11명(3.4%)으로 조사되었다. 교복 변형 장소에 대한 조사결과 ‘수선집’이 165명(72.1%), ‘세탁소’ 31명(13.5%), ‘교복을 구입했던 대리점’이 28명(12.2%), ‘집에서 직접’ 3명(1.3%), ‘기타’ 2명(0.9%)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와 같이 ‘교복 스커트에서 한 가지만 변형을 시키려고 한다면 어느 곳을 변형시키겠는가?’라는 질문에 ‘스커트 디자인’이 93명(29.2%), ‘스커트 길이’가 77명(24.1%), ‘스커트 색상’ 59명(18.5%)이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길이 짧게’가 54명(47.0%), ‘여유 많게’ 27명(23.5%)으로 조사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1. 설문대상자는 대전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 319명으로 구성되었다. 학교는 남녀 고등학교 여학생 138명(43.3%), 여자 고등학교 여학생 181명(56.7%)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168명(52.7%), 2학년 151명(47.3%)이었다. 키는 160cm 이상~165cm 미만인 131명(41.1%)으로 가장 많았고, 몸무게는 50kg 이상~55kg 미만이 가장 많았다. 엉덩이둘레는 86.4cm 이상~88.9cm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2. 현재 입고 있는 교복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평가문항

중에 3.5점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문항으로는 ‘교복을 입는 것이 학생의 신분을 나타내준다고 생각된다(3.81), 빈부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므로 교복이 필요하다(3.75), 교복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3.68)’의 항목으로, 반면에 2.5점 이하의 부정적 측면에서 불만족하고 있는 문항으로는 ‘교복의 디자인은 청소년 감각에 맞는다(2.11), 교복이 나의 전체적인 외모를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한다(2.19), 교복의 색상이 마음에 든다(2.33), 교복 디자인은 다른 학교이 교복보다 마음에 든다(2.34)’ 문항의 디자인 측면과 ‘구김이 잘 가지 않는 편이다(2.25), 체형의 결점을 보완해주는 편이다(2.33), 몸을 뒤로 재깎 때 편안하다(2.37), 책상에 앉아서 학습할 때 편안하다(2.37), 버스 손잡이를 잡을 때 불편하다(3.72)’ 문항의 동작 기능적 측면과 ‘전반적으로 볼 때 교복은 가격에 비해 품질이 좋은 편이다(2.13)’ 가격에 대한 문항이었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대한 만족도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는데 상징적 만족도, 관리 만족도, 활동 만족도, 심미적 만족도 순으로 나타나 여고생들이 심미적인 만족도에 가장 불만족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복은 어떠한 형태로 구입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기성복’을 구입하는 경우가 235명(73.7%), ‘맞춤복’은 84명(26.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입한 브랜드의 선택 동기로는 ‘디자인이 좋은 것’이 106명(33.2%)으로 브랜드를 선택하는 가장 우선 동기였고, 다음으로 ‘교복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은 것’이 74명(23.2%)이었다. 반면에 ‘옷감이 좋은 것’은 22명(6.9%), ‘광고 모델 팬이어서 혹은 멋있어 보여서’ 12명(3.8%), ‘판매원의 권유’는 6명(1.9%)으로 교복을 선택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교복의 변형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변형 경험은 71.2%가 교복을 변형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여고생들이 교복을 변형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변형을 하는 이유로는 ‘치수가 맞지 않아서’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순으로 조사되었다. 상·하의 변형 정도는 재킷은 허리둘레, 재킷길이, 앞폭, 뒤폭 등의 순으로, 스커트에서는 스커트 길이,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의 순으로 상의와 마찬가지로 짧고 타이트하게 변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변형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교복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몸에 맞게 고쳐 입을 수 있다’ 118명(37.0%), ‘각자의 개성이므로 괜찮다’ 99명(31.0%)가 전체 68%의 생각이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조사대상을 대전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기타 지역이나 청소년 전체에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여고생들의 동조적인 교복 행동과 변형에 대한 행동을 극복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재킷과 스커트의 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시판되는 교복에 적용하여 생산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애란, 김양진, 심정은. (1999). 여고생의 교복 관련 행동과 심리적 특성 및 의복 태도의 관련 연구. *생활과학논집*, 13, 31-41.
- 공정거래위원회. (2001, 5. 4). *교복 제조·유통 업체들의 가격 담합 및 공동구매 방해 등에 대해*. 서울: KDI 경제정보센터.
- 권유민. (2008). *여고생의 신체 이미지 왜곡과 교복 변형 행동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순. (1993). *여중생 교복 실태 및 디자인 선호에 따른 교복 디자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덕하. (2000). *성장통을 고려한 여중생 교복 맞춤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순화. (1992). *교복 착용이 학생의 자아개념과 의복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인숙, 장혜경. (1999). *여고생(16~18세)의 체형 분류 (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3(6), 876-885.
- 김정희. (1990). *서울시 남·여 중·고등학생의 교복·자유복 착용에 따른 의복 행동과 성역할 태도의 차이*.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화순. (2001). *여중생의 교복 디자인 만족도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련. (1994). *남자 중학생 교복의 치수적합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애. (1997). *교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고등학교 여학생 복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정희. (1998). *여고생의 교복 착용 태도와 의복 행동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승희. (2000). *CAD를 이용한 교복 디자인 개발 경로 연구*. 인천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명희. (1999).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학교 생활적응이 의복 태도에 미치는 영향*. *복식*, 46, 143-158.
- 이상희. (1996).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 만족도, 의복 만족도, 자아개념: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소은. (2000). *남녀 고등학생의 신체 이미지와 교복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남녀공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인자. (1992). *교복 착용 여부와 청소년 비행 행동 간의 관계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1), 85-96.
- 이에경. (2006). *청소년의 의복 관심도와 교복 만족도 및 교복 변형 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혜경. (2000). *교복 변형 실태와 교복 디자인 개선에 관한 연구(서울시내 여고생의 하복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혜경, 김세희. (2004). *여고생의 교복 및 장식 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2(1), 136-150.
- 최종명, 김희숙. (2000). *여고생 하복의 착용 만족도 및 하복용 직물의 쾌적성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8(11), 105-114.
- 한미화, 이은희. (2009). *청소년의 교복 행동과 의도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1(2), 22-43.